

아리셀대책위·유가족협의회 긴급 기자회견

막말로 23명 노동자 두번 죽인

국힘 우재준 의원은 아리셀 유가족에게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

- 일시 : 2025. 10. 17. 금. 오전 11시
- 장소 : 국민의힘 당사 (여의도)

- 기자회견 순서 (사회: 박세연 아리셀대책위 상황실장)
 - 대책위 : 양한웅 공동대표 등
 - 대책위 법률지원단 : 손익찬 변호사
 - 노동 :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
 - 가족협의회 : 김태운 공동대표 및 유족 발언 진행
 - 기자회견문 낭독
- ※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당대표 항의 방문 진행

1.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.
2. 15일(수)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쏟아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막말로 대해 아리셀대책위 및 가족협의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우재준 의원의 즉각 사과와 사퇴를 촉구합니다. 이에 10월 17일(금) 오전 11시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아리셀대책위·가족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. 기자회견에 이어 유족들은 국민의힘에 항의 방문하여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.
3. 기사 여러분의 적극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. 끝.